



파킨슨병에서 인지기능 및 행동장애: 환자분들을 위한 안내

파킨슨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기능장애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기억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이 진행할수록 주의력, 사고력 및 기억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지기능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중력 저하
-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어려움
-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짐
- 생각이 빨리 떠오르지 않음
- 사건 자체나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함 (힌트를 주면 종종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함)

인지기능장애가 심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치매라고 하며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서 아직 치매라고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인지기능장애는 왜 발생할까요?

파킨슨병은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의력, 사고력 및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지기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지기능장애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은 환자들이나 고령의 환자들에서 발생합니다.

환각 및 망상

인지기능장애를 가진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서 환각이나 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며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주로 동물이나 사람이 보이는 시각적인 환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상은 병으로 인해 생기는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을 말하며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거나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환각이나 망상은 보통 파킨슨병을 오래 앓은 환자들에서 발생합니다.

환각이나 망상이 의심된다면, 파킨슨병 외에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망상이나 환각을 유발할 만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면이나 통증 관련 약물이 망상이나 환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과적 문제 해결과 약물 조절 후에도 망상과 환각이 지속된다면 담당의사는 파킨슨병 약물의 용량을 줄여볼 수도 있고, 인지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으며, 또는 망상이나 환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기능장애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재 복용중인 약물들이 인지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복용중인 모든 약물을 담당의사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기능문제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담당의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인지기능장애가 심각해지기 전에:

- 가족 및 담당의사에게 향후 가정간호나 요양시설 이용 등에 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대리 위임권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인지기능 장애가 심해지는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은 환자분을 대신해 여러가지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산상태와 환자분의 유언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의 인지기능장애가 심각해지면 유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지기능장애를 치료할 수 있나요?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갈란타민, 메만틴과 같은 약물들은 파킨슨병치매에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상기 약물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약물들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설사가 있습니다.